

진안군, 살기 좋은 농촌도시 도약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 전국 농어촌 군 지역 종합 3위 · 문화 · 공동체 분야 첫 1위



전춘선 진안군수

진안군(군수 전춘선)이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전국 농어촌 군 지역 중 종합 3위에 오르며, 살기 좋은 농촌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는 2024년도 15위에서 무려 12계단 상승한 결과로, 진안군의 다양한 정책 추진과 행정·주민 간 협력의 성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은 특히 △문화·공동체 분야 1위, △환경·안전 분야 2위, △보건·복지 분야 11위를 기록하며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을 보였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전국 129개 농어촌 군과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5개 영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

체, 환경·안전, 지역협력)과 총 20개 세부지표를 종합 분석해 산출된다. 진안군은 종합 점수 46.67점을 획득해 군 단위 평균(37.26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진안군은 올해 처음으로 문화·공동체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분야는 △주민의 사회참여도 △공동체활동 경험 △문화시설 접근성 등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 활력도를 반영하는 지표다.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규모 문화행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주민 주도형 지역 거버넌스 확립 등 지속적인 공동체 기반 정책을 추진해왔다. 군은 특히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마을 축제와 공공시설 운영, 생활문화 등에서 주민 자율성과 참여율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 분야 11위도 눈에 띄는 성과다. 진안군은 공공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왔으며,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고위험군 집중 관리사업 등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해왔다.

또한 환경·안전 부문도 지난해 1위에 이어 올해 2위에 오르며 지속적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빈집 재생 정책 △하수처리시설 정비 확대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연속적 대응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주요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춘선 군수는 “이번 평가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군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하나하나가 모여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진안군은 강점은 더 강화하고, 취약한 분야는 보완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주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는 진안군이 살기 좋은 농촌도시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21일 무주를 주계로와 단천로 일대 주요 상가와 반딧불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 첫 시작을 알렸다.

물가안정 전 군민 동참 캠페인

무주군, 12월까지 주요 상권 · 관광명소 · 전통시장 중심 실시

무주군이 ‘물가안정 전 군민 동참 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합리적인 소비자 물가 회복, 건전한 소비 문화 확산을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주요 상권(무주읍, 안성면, 설천면)과 관광명소(무주구천동,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전통시장(반딧불장터, 덕유산장터, 삼도봉장터)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에는 소비자개발센터, 관광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협회 등 다양한 물가 관련 단체들이 협력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무주가 행복해지는 물가안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 상권 이용 협조, △바가지요금 근절,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 △환한미소 친절 응대 실천을 독려한다.

특히 축제·파사철·명절 등 관광객이 많아지는 특정 시기에는 물가안정 캠페인을 집중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6월 산골영화제 기간(6. 6. ~ 8.)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물가안정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임재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전 군민 동참 캠페인이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과 소비자 모두를 일구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캠페인이 지속성을 가지고 무주군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무주를 주계로와 단천로 일대 주요 상가와 반딧불시장에서 첫 시작을 알린 물가안정 캠페인에는 관련 공무원과 물가조사원, 소비자개발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직접 점포를 방문해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며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며 캠페인 동참을 독려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진안군은 21일 MOU 체결지역인 필리핀 마갈레스시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33명과 농가형 근로자 23명 등 총 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안군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729명으로, 이 중 MOU 체결국인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가 487명,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가 242명이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에는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의 자네사 시장 당선자(36세)와 프레디 농정국장(50세)이 직접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자네사 당선자는 근로자들을 인솔해 입국한 뒤, 공동숙소와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격려했고, 진안군의 선진 농업 현장을 견학할 계획도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진안의 특산물로 준비된 ‘홍삼시래기 밥’과 떡갈비로 점심식사를 한 뒤, 진안군의료원에서 마약검사를 받고, 조공 회의실에서 경찰·소방·노무전문가로부터 범죄예방, 화재안전, 인권 및 근로기준법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근로자들은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권역별 공동숙소 6곳에 배치돼 농작업을 준비 중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무주군은 21일 무주소방서와 공동주관으로 무주읍 서면마을에서 풍수해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침수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군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무주경찰서와 육군 7733부대 1대대, 한전 무주지사, KT 무주지점,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역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기관과 민간 단체,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여해 하천 범람과 침수, 산사태 대응 상황을 훈련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대피와 시설 임시 복구, 실종자 발생 시 대응 역량을 점검해 의미를 더했다.

통합연계 훈련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풍수해 현장 조치 행동 안내서를 기반으로 침수 감지, 초기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의 4단계로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재난 발생 초기 상황전파, 현장 대처,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실질적인 군민 참여 확대, △재난관리 자원의 가동과 부족자원 응원 요청 등에 집중하며 실전 훈련에 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통령선거,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무주군, 전방위 투표 참여 독려

무주군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최근 5개 선거 평균 투표율이었던 약 76.0%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투표 독려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시가지에 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공기관 로비 홍보 배너 설치는 물론,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주민들에게 투표 참여 독려,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의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고3 학생, 18세)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군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 LED 전자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

사전투표는 지역 내 6개 투표소에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8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장수경찰서,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협약

장수군은 21일 장수경찰서와 경찰공무원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장수군이 운영하는 ‘장수 치유의 숲’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최훈식 군수와 황재현 장수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경찰공무원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림치유의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홍보 △국민 안전을 위한 양 기관의 인적·물적 교류 등이다.

최훈식 군수는 “경찰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 특성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



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010-9433-0696 063)322-6668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